

제주를 그린 이중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은 서귀포 단간방에서 한때를 지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가족과의 추억을 화폭에 담은 이중섭의 자취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술과 어우러진 제주의 또 다른 모습을 맛보게 한다.



이중섭로 | 서귀포시 서귀동 406-9 ~ 서귀포시 서귀동 478-5(약 0.4km)

명동로 | 서귀포시 서귀동 430 ~ 서귀포시 서귀동 211(약 0.6km)

동정로 | 서귀포시 서귀동 317-3 ~ 서귀포시 서귀동 251-1(약 1.3km)

천지로 | 서귀포시 서귀동 294-18 ~ 서귀포시 서귀동 301-3(약 0.6km)

동문로 | 서귀포시 서귀동 287-2 ~ 서귀포시 서귀동 256-38(약 0.8km)

서문로 | 서귀포시 서귀동 299-1 ~ 서귀포시 서귀동 323-19(약 0.7km)

문부로 | 서귀포시 동홍동 450-70 ~ 서귀포시 동홍동 170-16(약 0.4km)

이중섭로/명동로 | 화가 이중섭

이중섭로는 우리나라의 근대 화가 중 대표적인 인물인 이중섭기념관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중섭은 6·25전쟁 중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서귀포로 피난을 와서 11개월 동안 생활했다. 전쟁으로 본의 아니게 유배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중섭이 살던 집은 한 평 남짓한 단칸방이었다. 이중섭은 제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종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담배를 썼던 종이에 그림을 그릴 정도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의 풍경을 담은 〈서귀포의 환상〉, 〈씻음이 보이는 풍경〉 등의 걸작을 그려냈다.



이중섭미술관

이중섭하면 소를 그린 그림들이 유명하지만 제주에서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나 제주의 경치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특히 게를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게를 많이 잡아 먹은 것이 미안해서 게를 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제주를 떠난 이중섭은 말년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41세의 이른 나이에 외로이 삶을 마감한다. 이중섭의 제주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서귀포는 그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서귀포에서는 이중섭과 서귀포의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이중섭이 살던 집앞의 거리를 이중섭거리로 조성했다. 그리고 2002년 개관한 이중섭미술관은 그의 삶과 예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섭로는 이렇게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화가 이중섭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길이다.

이중섭로와 인접한 **명동로**는 정방동과 서울의 인사동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기념하여 부여된 이름이다. 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서울의 인사동과 이중섭거리가 있는 서귀포시의 정방동은 2008년 자매결연을 맺고 합동워크숍, 감귤관측행사, 시낭송회 초청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문화의 도시로 거듭 나는데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 정방동과 인사동은 이중섭과 제주의 인연처럼 새로운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정로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태평로를 시작과 끝 양쪽에서 만나는 중정로 인근은 서귀포시 상권의 중심가이다. 특히 중정로 북쪽에 있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도심권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1960년부터 5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4~5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전통시장처럼 어려움을 겪었다. 상인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제주 전통 떡인 오메기떡을 전략 상품으로 홍보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외에도 축제와 이벤트 등을 여는 노력 끝에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거듭났다. 특히 제주올레 6코스가 지나면서 올레꾼들이 자주 찾고 있어 방문객 중에 관광객이 70%에 이를 정도이다. 최근에는 야시장을 조성해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천지로/동문로/서문로/문부로 | 작가의 산책길



작가의산책길

서귀포 시내 길들의 이름에는 마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다. 천지연폭포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천지동에는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천지로가 지나고, 동문로와 서문로는 옛 서귀진성의 동문과 서문 방향에 있는 로터리로 향하는 길의 이름이다. 또 동홍동에는 문부로라는 길이 있는데, 옛날 이 마을에 살았던 문부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부로는 양반임에도 집안이 무척 가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양반의 지조를 잃지 않고 상투를 틀고 다니면서 행동을 양반과 같이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거지양반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전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예술가들과 관련된 장소들을 이은 작가의 산책길을 조성했다. 이충섭, 현중화, 변시지 등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과 아름다운 자연을 맛볼 수 있는 이 길은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